

광주 첨단·여수산단, RE100 전환 속도

산업부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선정 산단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모델 확산 기대

광주 첨단산단·여수국가산단의 재생에너지 RE100 전환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 첨단산단과 여수 국가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재생에너지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5억원(국비 64억원, 시·구 17억원, 민자 24억원)을 투입해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100(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지원 체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공급모델 표준화 실증을 추진한다.

해동에너지(주)를 주관기관으로 ㈜티하브, ㈜라인이엔지, ㈜이서이엔씨,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첨단산단 내 재생에너지 경제성과 잠재량 분석, 유형별 진단과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하고 산단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전력거래(PPA·직접전력구매계약) 모델을 개발해 중앙기 재생에너지 조성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이행 컨설팅, 에너지 소비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국내 재생에너지 100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생에너지100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재생에너지100 이행 실증을 위해 광주 첨단국가산단내 태양광발전설비 2.5MW와 풍력발전 100kW 등 재생에너지를 구축하며, 이번 사업으로 첨단산단 내 재생에너지원 발굴과 잠재량 예측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선순환 등이 기대된다.

전남도도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지 내에 재생에너지100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2억원(국비 64억원·지방비 30억원·민간 18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유에너지, (재)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사업 기간 산단 유류부지에 3.2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실증 기업에 전력거래(PPA) 방식으로 공급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국내 재생에너지100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기업의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100 이행 컨설팅도 제공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미래산업의 쌀인 재생에너지로 재생에너지100 실현의 최적지인 전남에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재생에너지100 이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해 전국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최근 대유위니아를 찾아 경영진,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정상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유위니아 정상화 위해” 광산구 전방위 노력 ‘주목’

오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기관 공조 만전

광주 광산구가 대유위니아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전방위적 협조 체계 구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10일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10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고용 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광산구는 우수인력의 이직이나 다른 지역 유출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대유위니아 사태로 타격받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위한 신청도 받고 있다. 2차, 3차 협력업체를 뒷받침할 연관 부서 TF를 가동하고, 기업주치의센터의 역량을 활용해 상황 타개를 위한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사태 해결의 핵심 관건인 정부지원 확대를

목표로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 전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가동 중이다. 광산구는 특히 광주시에서 지난달 25일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지정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르면 오는 15일께 정부가 광주시의 받아들이면, 광주시 등과 함께 1차,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유위니아를 찾아 경영진,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신속한 공장 가동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집중하겠다"면서 "대유위니아도 자체적으로 노사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길 기자 srchoi@

양식 수산물도 정부 구매한다...전남 어민들 안도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시행요령 발표

정부가 어획 수산물이 아닌, 양식 수산물도 비축할 수 있게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3일 고시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축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에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된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시행요령'에는 '외부요인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발생한 산지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위

원회에서 특정품목의 구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식수산물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 시기에 구매해 비축하는 수산물로,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조절로 생산 및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비축 구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획 수산물 중 해 생산 및 공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하는데,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와 천일염이 대상이며 양식 수산물은 그동안 제외됐다.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

물 소비 위축과 일부 양식 품종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 비축사업에 양식 수산물을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고시 개정으로 구매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비축수산물 판매처에서 판매 관장 가격 미준수 등 부당한 판매가 적발될 시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된 시행요령은 공고일인 3일부터 시행됐고 행정처분 관련 규정의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사항이 개정된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개정에 반영되면서 전국 양식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 어민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새싹기업 30곳, 302억 투자방향 성과

창업 페스티벌 통해...시, 투자유치 전담반 구성키로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창업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새싹 기업(창업기업)들이 총 302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새싹 기업(창업기업) 30개사는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업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상담에서는 창업기업 220개사와 국내의 투자사 250개사가 만났다.

페르소나 에이아이는 효성벤처스와 50억원 규모 투자 협약을 했으며, 바라이노베이션은 케이 시드업 여소시에이션과 북미 시장 진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광주시가 경진대회를 거쳐 선발한 'G-유니콘 기업' 인트플로우, 점단랩, 포엘, 스튜디오버튼 등도 국내외 투자자들과 투자 의향서를 작성했다.

광주시는 투자협약·양해각서에서 서명한 투자자들

에 대한 사후 관리로 실무자를 지원하고 기관별 투자유치 전담반도 구성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NHN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IBK기업은행, 교보생명, 호반그룹,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외 대기업들도 참여해 37개 기업과 기술 이전, 후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주최의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광주창업 페스티벌은 일회성 전시행사를 탈피하기 위해 사전에 창업기업과 대기업, 투자자 간 매칭행사를 지속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사후 후속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에 천사보금자리 8호 준공

전남·경북 상생협력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화순에 천사보금자리 8호가 준공됐다.

전남도는 9일 화순 백야면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과 협력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천사 보금자리 준공식을 개최했다.

천사보금자리는 전남과 경북의 상생협력 사업인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중 하나로, 두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입주하는 가정은 7세, 9세 남매가 있는 다문화가정으로 기존 주거지의 경우 담장과 대문이 없어 보안이 취약하고 주택이 노후해 누전이

나 화재 위험이 있었다.

이번 천사보금자리는 한전KPS 등 기업과 5300명의 개인이 낸 후원금(3000만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금(1500만원)으로 네 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등 주택 개보수를 추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천사보금자리가 아동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안전을 제공하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